

# 人生의 價値

[學界報] 제1권 제 1호 (1912년 4월 1일)

대개 物이 有하매 價値가 有함은 自然界의 一대 眞理라 謂할지로다. 大抵 糞矢는 極히 汚穢한 者로대 利用하면 肥料를 供하며 砂石은 極히 陋賤한 者로대 磨琢하면 寶玉을 成하며 灰炭은 極히 粗末한 者로대 和浸하면 瀚濯에 資하나니 由此 觀之컨대 價値가 無한 物은 이 人間社會에 要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元來 造物主가 그 存在함을 不許한 所以로다. 嗟하다. 우리 人生이 廣漠한 宇宙間에 介在함이 滄海의 粟과 等하도다. 如何한 方法으로 如何히 做去하면 相當한 價値를 發揮할까. 先哲이 云하되 我는 未免爲 鄉人으로 爲愛라 하였으니 是는 實로 우리의 注意地며 期圖處라 하노라. 然하나 原是 人類는 賣買品이 아니라 金錢上 價値는 論할 바 無하거니와 飛走는 鳥獻에 不及하며 潛躍은 魚龍에 不及하며 堅固는 木石만 不如하거늘 何故로 萬物의 靈長이라 稱하는지 或 自許에 過度치 아니한가 자못 稱할 뿐이라. 實地로 地球를 區分하며 萬物을 支配하여 隱默히 宇宙間 主人翁을 作함은 他가 아니라 元來 皇天이 萬物을 創造하실새 或 技能만 與한 者도 有하며 或 勇力만 與한 者도 有하며 或 強氣만 與한 者도 有하니 卽 語에 云한 바 角을 與한 者는 齒를 與치 아니함이라. 如此히 偏方的으로 賦與하시었거늘 우리 人類에게는 不照하여 良知 良能을 與하시며 聰明을 與하시며 言語를 與하시며 또한 相當히 活用할 機關되는 四肢百骸를 與하시 具體的으로 完全無缺한 資格을 賦與하매 原因함이로다. 大抵 天이 吾人에게 賦與하심이 如此이 厚重하시고 吾人이 天에게 受함이 如此이 廣大하거늘 어찌 暴棄에 自流하며 依賴를 是好하여 一價値없는 物을 作하리오. 或 蓬戶 門에 一生을 虛送다가 萬疊青山에 一杯土物을 作한 者도 有하며 或 朱閣青樓에 百年을 自誤하여 一般 社會界에 一索米沃을 作한 者도 有하며 或 吳市越會에 片利를 是逐하여 萬衆會場에 一龔斷夫를 作한 者도 有하니 嗚呼라 人生의 至悲至慘한 境遇가 此外에 過할 者 無하도다. 是以로 人類의 進取를 論하매 孔曰 仁이라 하며 孟曰 義라 하였으니 至哉라. 此言이여 富貴가 能히 淫치 못하며 貪賤이 能히 移기 難하도다. 殷湯은 萬乘의 帝王이로대 桑林에 祈하고 伯夷는 百世의 師表로대 首陽에 餓하니 是皆 人生의 價値를 發揮하기 爲하여 然함이로다. 우리 人生은 마땅히 至高至健한 良心의 指揮를 從하여 千人이 阻防하되 我獨往之하며 滿人이 沮毀하되 我獨爲之란 氣概로 天賦한 價値를 發揮할지로다. 顏賢曰 有爲者赤 若是라 하였으니 爲할지며 那帝曰 無不可能이라 하였으니 能할지니 吾人이 此世에 生치 아니하면 已어니와 만일 生할진대 어찌 自然界의 眞理를 背馳케 하며 天賦한 價値를 拋棄하여 禽獸不若의 歎을 作하리오.